

영화사의 명작 '카사블랑카' 뒷이야기

알진 하르메츠의 「카사블랑카- 보가트, 버그만, 그리고 2차대전」

배병삼

경희대강사 · 정치학



술한 사랑의 밀어들과 험프리 보가트 잉그리트 버그만 두 남녀배우의 명연기로 올드팬들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영화 카사블랑카.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어느 봄날.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트 버그만은 점심을 같이 하기 위해 한 자리에 앉았다. 이러저러한 한담 끝에 이들은 며칠전 함께 찍기 시작한 '지랄같은' 영화에 이야기가 미쳤다. "두 사람은 그 영화의 대사가 우스꽝스럽고 영화의 시츄에이션도 말이 안된다고 내내 투덜댔어요." 당시 영화촬영에 같이 참여했던 여배우 제랄딘 피트 제랄드의 증언이다. 대략 짐작하겠지만 그 영화는, 잉그리트 버그만의 대사, "권총이 발사된 거예요? 아니면 제 가슴이 그토록 통통거린 거예요?"로 유명한 '카사블랑카'이다.

당대의 두 스타들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투덜댔던 그 '카사블랑카'의 대사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잊혀지지 않는 명연들로 대중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았다. 짐작컨대 어느 영화치고 '카사블랑카'의 대사만큼 사랑받고 많이 인용

된 것도 없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재미난 것은 이 영화가 현장촬영이 아니라 스튜디오 안에서 일련의 공정과정을 통해 제작된 값싼 영화라는 사실이다. 카사블랑카의 감동은 끝없는 것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 영화의 제작자들은 영화촬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떤 식으로 영화를 끝내야 할지에 대한 확고한 지침이 없었다는 사실은 씁쓸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이겠다. 영화 캐스트들로서는 전쟁통에 시달린 대중들을 달래기 위해 감상적인 사랑이야기와 상큼한 대화내용을 섞은 멜로드라마를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 제작의도였지 않았나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대중문화의 신화적像을 제시하게 되었으니 꿈보다는 해몽 좋기가 이를 데 없이 된 셈이다.

사실 '카사블랑카'는 오늘날까지 근 반세기를 거쳐 수많은 복사필름이 새롭게 만들어져

온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이다. 그토록 '카사블랑카'의 감동을 못잊어 하는 열광적 팬들에게라면 최근 출간된 「카사블랑카- 보가트, 버그만, 그리고 2차대전」(ROUNDUP THE USUAL SUSPECTS, The Making of 'Casablanca' - Bogart, Bergman, and World War II, 402 pp, New York : Hyperion)은 좋은 읽을거리가 될 터이다. 저자는 앞서 「영화 '오즈의 마법사'는 이렇게 만들어졌다」의 저자이기도 한 알진 하르메츠(Aljean Harmetz).

오늘날 할리우드의 영화제작은 모두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요즘의 영화에 대해서는 훗날 이같은 책으로 묶여지지는 못할 것이나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모두 메모로써 지시하고 약속하였고 또한 기록을 두루 남기는 때여서 이같은 책이 묶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알진 하르메츠의 유려한 필치는 영화 제작과정의 편린과 일화들을 놓치지 않고 날날이 서술하고 있다. 가령 주인공 릭역에 처음에는 험프리 보가트가 아니라 로널드 레이건이 선정되었었다는 이야기 등등.

당시의 전쟁상황과 몰타반공이 영화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지를 따지는 부분은 지금 할리우드의 풍요(?)에 비겨볼 때 더욱 흥미진진하다. 예컨대 마지막 장면에서 리스본으로 떠나는 비행기는 합판으로 만든 것이었고, 화면으로는 처절한 悲感을 더해주었던 안개가 실은 합판으로 만든 비행기의 모양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니... 한편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카사블랑카'를 제작했던 잭 워너와 할 윌리스에 대한 저자의 순박한 존경의 눈도 눈여겨 볼 만하다.

고전적인 사랑방식에 대해 칙칙한 향수에 빠져들지 않고서 저자 하르메츠는 영화 '카사블랑카'를 받치고 있는 냉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토의 결과 "옛날 할리우드는 예술과 장사속과 고난도의 작업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황금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얻는다. 이 영화의 제작자였던 윌리스는, 다시 말해 장사꾼인 제작자는 또 한편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루이스, 나는 이것이 아름다운 우정의 출발이라고 생각해!"라는 명대사를 쓴 장본인, 즉 예술적 제주꾼이기도 했다는 점이야말로 옛날 할리우드가 세계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핵심적 요인으로 저자는 보고 있는 것이다. 영화속의 주인공들, 릭과 일자는 항상 파

리에 가 있을 터이지만, 우리는 항상 카사블랑카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영화와 우리는 좋은 거래를 한 셈이다.

사형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기술과 산업은 주로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복무한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좋은 예는 무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희귀한 예로서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프레드 로이터(Fred Leuchter)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살인장치를 설계하고 만드는 미국내 유일한 사람이다.

로이터는 대량 학살무기, 이를테면 나찌 수용소에서 사용했던 가스실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만드는 것은 현실적이면서 윤리적인 문제- 말하자면 사형집행을 했는데도 죽지 않은 사형수문제-를 해결하는 장치이다. 예컨대 1990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전기의자로 사형을 집행하는 동안 사형수의 머리부분에서 매연과 6인치의 화염이 용솨우쳐 나오는 바람에 세번이나 전기의자를 다시 작동하고서야 겨우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형수는 세번이나 죽음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의 원인은手工으로 제작한 전기의자의 부속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나의 예는 올해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형집행인들이 마약중독의 전력이 있는 사형수의 망가진 핏줄 사이에 전기연결점을 찾다가 워낙 사형수가 살려달라고 혼들어대는 바람에 근 47분이나 법정 사형집행시간을 끌었던 경우였다.

"최고의 형벌, 최하의 고통." 이것이 프레드 로이터의 작업 지침이다. 사회는 어떤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판결한다. 이 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이다. 여기서 로이터 같은 정말 '미국적'인 천재들이 일감을 발견한다. 주어진 문제를 쉽게, 고통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로이터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된다. "요즘 있는 사형집행기구는 워낙 낡은 것이고, 애초부터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최신행으로 전문가가 제작한 8만 5천달러짜리 사형장치를 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선택 사양까지 해준다는 데야. 가령 참나무받침대에 등받이까지 붙인 전기의자도 있다고 한다면



프레드 로이터.

...”
 이러한 예는 희귀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스테판 트롬블리(Stephen Trombly)가 상재한 「사형집행명령」(THE EXECUTION PROTOCOL, Inside America's Capital Punishment Industry, 342 pp, New York : Crown Publishers)에는 순수하게 사형문제만을 다루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형문제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책속에 출현하는 간수들, 경비원들, 사형수들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들은 사형문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논급하고 있지 않고 저자 역시 묻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로 이러한 요상한 접근방법이야말로 이 책의 장점이다. 사형은 이미 존재하는 문제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그것이 집행되며, 무엇이 문제이며, 그리고 집행자와 사형수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저자 트롬블리의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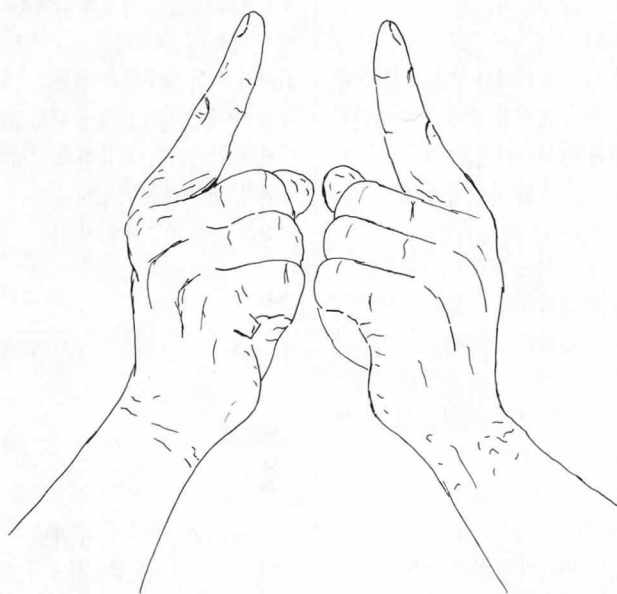
「사형집행명령」이란 말은 교도소 당국에 의해 설립된 사형집행위원회에서 쓰는 말을 따온 것이다. 이 기관은 새로운 사형기구들을 실험하고 또 실험한다. 또한 전화내용은 반복하여 체크하는데 그것은 자칫 특별사면 명령을 놓치거나 앓을까하는 우려에서이다. 스태프들은 사형에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을 여러번 실시함으로써 실제 집행과정에 직면했을 때 실무진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는 실수를 낳지 않게끔 한다. 그리고 교활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사형집행 전날 밤에는 포르노 필름을 보여줌으로써 재소자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법조항에 의해 꼼꼼하게 준비되는 사형집행 과정들과 낱말의 기록, 그리고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적 조치들은 원자탄을 실수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장치된 예방조치들보다 더 세밀하고 복잡해보인다. 그러나 한 사람을 전기의자에서 죽이는 것이 낮은 외국의 수백만명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주의적 조치들은 우선적으로 사형수의 심리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화제작자인 이 책의 저자, 트롬블리는 사형집행과정을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촬영하였고 그 가운데 로이터의 사형집행기구에 관한 장면과 사형집행위원회의 작업부분을 선별하여 이 책의 도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 48살 먹은 로이터는 평상적인 사람들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인물임이 분명한데 그는 소름끼치는 도구를 도덕적 판단과는 관계없이 제작하는 기술자로서 오로지 관심은 얼마나 확실하게 사형이 집행될 것인가에 두고 있는 것이다. 사형집행위원회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경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로서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고 항변한다. 저자가 인터뷰한 사형집행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때마다 그 사형수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에 눈물짓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기계적으로 사람의 죽음을 처리하는 냉혈한들은 결코 아니라고 저자는 이들의 심경을 전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의 결론은 없다. 다 읽고 난 다음 독자들의 가슴에는 언짢은 느낌이 앙금처럼 남을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저자가 남겨둔 결론이 아닌가 싶다. 사형문제에 대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형문제에 대한 질문하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책에서 사형제도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음에도 독자들에게는 사형제도의 윤리성을 따지게 만드는 묘한 글쓰기가 저자의 복선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12월엔 닥터 지바고의 영혼, 그 손의 떨림을 따뜻이 잡아 주고 싶지 않겠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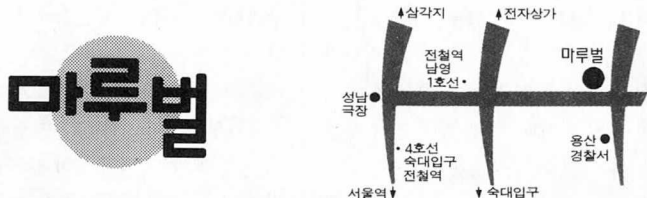


사보·잡지·단행본을 창간하고자 하시는 업체,
 표지·본문디자인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
 기획·편집의 어려움을
 저희 「마루벌」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루벌」가족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루벌이 소중히 여기는 일들

- 디자인 / 표지·본문·광고·카드로그
- 편집 / 사보·잡지·단행본 전문업체
- 출력 / 매킨토시 출력
- 재판 / 인쇄·단색제판
- 제작 / 인쇄·코팅·제본

> 방문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제작한 서체견본집을 드립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701-2391(대표) FAX:701-2395